

전문 통역에 대한 통역사와 대중의 인식 연구 - 쿠팡 청문회 통역 사례를 중심으로 -

장보윤* · 허지운**

Boyoon Jang and Jiun Huh (2026). A study of interpreters' and public perceptions of professional interpreting: A case study of the Coupang hearing. This study examines the respective perception of professional interpreting among interpreters and the general public, focusing on the interpreting performed during the 2025 National Assembly hearing on the corporation Coupang. It aims to explore both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between the two perceptions. Public perceptions were examined through keyword analysis and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topic modeling of comments posted on YouTube videos related to the Coupang hearing. Interpreters' perceptions were explored through interviews with six interpreters from diverse professional backgrounds. The findings revealed both shared and differing views between the public and interpreters regarding the role of interpreting, interpretation quality, interpreters' impartiality and ethics, respect for professionalism, and politicians' English proficiency. Notably, interpreters emphasized the need to establish clear protocols for the use of interpreting in public communication setting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guidelines for the effective use of interpreting in these context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Keywords: Interpreting in national assembly hearings, public perceptions, guidelines for interpreting users, professional interpreting, interpreter impartiality

주제어: 청문회 통역, 대중시각, 통역 사용자 가이드라인, 전문통역, 통역사 중립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신저자

1. 서론

글로벌화와 교역 확대에 힘입어 기업의 활동 반경은 국경을 넘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기업들은 단순 교역을 넘어 해외 지사 설립이나 해외 증시 상장 등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역시 여전히 활발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외 기업일지라도 국회 청문회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2016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관한 청문회, 2024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그리고 최근 2025년 12월에 진행된 쿠팡 청문회에서 외국인 대표들이 출석하였고, 이에 따라 의원의 질의 및 증인 발언에 대한 통역이 제공되었다(이성현 2026).

외국인 증인 및 참고인이 청문회에 등장하면 청문회 현장의 의사소통, 기록,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통역이 제공된다. 청문회가 생방송 또는 유튜브 생중계되는 경우, 통역도 함께 실시간 중계된다. 외국인 증인이 출석했던 그간의 청문회에서는 상황에 따라 동시통역, 순차통역, 또는 위스퍼링 모드가 활용되었다. 지난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발생으로 열린 청문회에서는 국제회의통역사 4명이 투입되어 동시통역이 진행되었으나, 당초 출석을 요구한 영국 본사 경영진이 대거 불참하여 아타 샤프달 옥시 대표 단 한 명을 위한 통역이 제공되었다는 언론 비판이 제기되었다(이대호 2016). 2024년 기획재정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에는 애플코리아 대표의 발언 및 의원의 질의가 모두 순차통역으로 진행되었다(OBS뉴스 2024).

금번 쿠팡 청문회는 3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청문회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도 개최되었다. 12월 2일 현안질의에서는 쿠팡측 통역사가 CISO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하여 각각 순차통역과 위스퍼링 통역을 진행하였다(NATV국회방송 2025). 12월 17일 청문회에서는 쿠팡측 통역사 두 명이 각각 CEO와 CISO를 전담 통역하였고, 증인의 답변은 순차통역으로, 그리고 의원들의 발언 및 질의는 위스퍼링 통역으로 진행하였다(NATV국회방송 2025). 2025년 12월 30일과 31일 청문회에서는 국회 측의 동시통역과 쿠팡 측의 순차 및 위스퍼링 통역이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어느 쪽 통역을 사용할지를 두고 청문회 초반 실갱이가 벌어지기도 하였다(민경하 2025b; 이성현 2026).

외국인 증인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통역을 통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언론은 이를 두고 외국인 경영진을 내세우고 순차통역을 통해 시간을 지연시키며 질문의 핵심을 흐리는 ‘꼼수’ 전략을 취했다며 비판하였다(김

효정 2025; 양형욱 2025; 이제항 2025). 더 나아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통역이라는 물리적 장벽을 방패 삼아 질문의 본질을 회색하고 답변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적 불통’을 선택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박용후 2025). 시간 지연이 문제가 되면서 일부 의원은 영어를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통역을 듣지 않고 질의를 바로 이어 나가다가 위원장이 직접 통역 재개를 요구하기도 하였고(이성현 2026; 홍수현 2025), 국회 청문회에서 AI 번역기를 쓰겠다고 압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민경하 2025a; 이제항 2025). 언론뿐 아니라 현장의 국회의원들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무시했다며 불만이 상당하였고, 국민도 “시간 낭비”라거나 “영어 듣기 평가 같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이제항 2025; 홍수현 2025). 한편, 본 청문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청문회 종료 이후에는 쇼츠로 확대 및 재생산되면서 시청자의 댓글을 통해 쿠팡과 통역에 대한 대중의 의견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처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 증인, 그리고 청문회 통역 사용 상황을 향해 언론과 대중의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한 기사에서는 통역 진행 방식과 전문 통역사들의 시각을 담았다(이성현 2026). 해당 기사에서는 외국인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회의 통역 운영이 매뉴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특히, 청문회 당시 윤색했다며 통역사를 질타한 계기가 되었던 문장, “one of the lowest rate(낮은 편에 속한다)”의 통역도 윤색이 아니라 정확한 통역이었다는 통역 전문가의 의견을 실었고, 이와 더불어 요약 선별 통역 요구나 통역사 중립성 인정에 관한 전문 통역사들의 견해를 담고 있다(이성현 2026). 한국통번역사협회(2026)도 이 사건에 대하여 통역사의 중립성, 윤리 및 청문회 통역 운영의 개선에 관한 주장을 공식 SNS 채널(@kati_official_korea)을 통해 밝힌 가운데, 청문회 통역을 둘러싸고 전문가와 일반 언론, 의원, 대중 간 인식차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언론과 SNS를 통해 각자의 입장만 확대 재생산되며 일반 대중 및 의원들과 통역 전문가들 간 전문 통역에 대한 인식차가 벌어지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쿠팡 청문회를 중심으로 일반 대중과 현직 전문 통역사의 통역에 관한 인식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문회를 비롯한 공적인 소통 현장의 전문 통역 운영 체계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통역사에 대한 대중 인식

통역사에 대한 인식은 크게 외부 대중의 시선인 사회적 인식과 이와 대비되는 통역사 스스로의 자기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허지운 2020; Zheng and Xiang 2018). 외부 대중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통역 또는 통역사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및 실제 통역 사용자 대상 조사가 주를 이루었다(강지혜 2010; 허지운 2016; 박소영 2020; 배소연 2026; Huh 2021).

선행연구들이 언론 보도에 주목한 것은 언론 보도가 특정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주도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이미선과 최진봉 2016: 55-56). 언론 보도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은 외부 자극을 백지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선행 경험을 구조화된 집합체로 내면화하여 세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건과 대상을 해석하기 때문이다(Tannen 1993: 21). 즉, 언론의 프레임은 수용자에게 통역사에 관한 선행 경험으로 기능하여, 사람들이 실제 통역사를 접하기 이전에 이미 특정한 기대를 형성하도록 작용한다(강지혜 2010).

국내 언론의 통역사 관련 보도를 분석한 연구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프레임의 양상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강지혜(2010)는 2009년 한 해 동안 보도된 기사를 분석하여, 통역과 관련해 네 종류의 프레임, 즉 정상회담 소통 등의 내용을 다루는 ‘소통 프레임’, 경제적 가치 창출을 중시하는 ‘수익창출 프레임’, 통역사의 ‘직업 프레임’, 그리고 ‘다문화지원 프레임’이 중심이 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조사 기간을 확대하여 2000년부터 2016년 사이를 분석한 허지운(2016)에 따르면, 언론에서 ‘동시통역’이나 ‘동시통역사’라는 용어를 연예인의 외국어 실력을 과시하거나 외모 및 화려한 배경을 부각하는 데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어, 통역사의 전문성 인식에 오히려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박소영(2020)은 1948년부터 2020년 1월까지의 통역사 관련 보도 826개를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 인식의 변화 과정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배출되면서 통역사는 고소득 엘리트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권력과 밀착되었던 남성 중심의 직업에서 여성 중심의 직업으로 젠더 전환이 이루어졌고 군부대 통역과 관련한 통역사를 향한 부

정적 프레임은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직업의 여성화 및 미디어 노출 증가와 맞물려 통역사의 외모가 과도하게 부각되거나, 방송 직군과 결합한 ‘엔터프리터(enterpreter)’로 소비되는 경향도 함께 나타났다. 아울러 동시통역사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신비감과 경외감으로 인해, 실제 통역의 수행 유형과 무관하게 외국어 능력자를 동시통역사로 등치시키는 등 통역 업무 본연에 대한 대중의 인식 혼란이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박소영 2020).

다만, 언론 보도는 언론의 시각을 전하는 틀이라는 한계가 있다. 언론이 구축한 프레임은 대중의 인식 형성에 기여하지만, 실제 수용자 및 대중의 인식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증적 고찰이 요구된다. 허지운(2020)은 진로 결정 시기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제회의통역사의 직업 이미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외부 대중은 통역사를 높은 학력과 지식이 요구되는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전문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용 안정성과 미래 전망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혼재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허(Huh 2021)는 실제 회의 통역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수요자 109명을 대상으로 통역사 고용 시 중시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제 사용자들은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 전문 용어 구사력 등 ‘통역의 품질’과 ‘특정 분야의 통역 경험’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통역사의 외모에 주목하거나 이들이 통역사가 아닌 출연진으로 방송에 나오는 ‘엔터프리터(enterpreter)’ 현상이 새로운 트렌드로 조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박소영 2020), 실제 현장의 수요자들은 통역사의 외모나 대중적 인지도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대중매체에 나오는 통역사의 이미지와 실제 통역 시장이 중점을 두는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Huh 2021).

배소연(2026)은 이러한 인식을 확장하여 통역사의 ‘자기 직업이미지’, ‘외부인의 실제 직업이미지’, 통역사가 예측하는 ‘지각된 외부 직업이미지’의 세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통역사들은 외부 대중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비판적으로 오해하여 불안감을 느끼지만 정작 실제 외부인들은 통역사를 이상적인 전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 집단 간에 심각한 구조적 인식 불일치와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대중매체의 중심이 전통적인 언론 보도에서 유튜브(YouTube)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로 이동함에 따라, 통역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 조사는 언론 기사나 설문조사를 넘어 온라인상의 의견 분석을 통해 다각화되었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댓글은 능동적인 수용자들이 가감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공간이므로, 대중의 살아있는 인식과 담론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비정형 데이터이다.

국내 통번역학계에서도 유튜브 댓글 등 온라인 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대중의 인식을 고찰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권상미(2020)는 봉준호 감독의 통역사로 화제를 모은 샤론 최의 유튜브 영상 댓글을 LDA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수용자들은 통역사의 뛰어난 전달력과 이해력을 극찬하면서도, 동시에 통역사의 외모, 나이, 표정 등 외형적인 모습이나 단순한 어학 실력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미디어 속 통역사가 여전히 피상적인 이미지 위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권상미(2023)는 연구 범위를 넓혀 유튜브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셜 미디어상에서 통역 콘텐츠가 어떻게 소비되며 일반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직업적 인식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대중이 동시통역사를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직업으로 선망하는 한편, 다양한 통역 하위 직종들을 ‘통역사’라는 단일 명칭 아래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수화통역사의 경우 국가공인자격증 제도와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구체적인 직업적 역할에 대한 온라인 담론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고도의 인지적 훈련이 요구되는 동시통역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자격 요건이나 역할 경계에 대한 명확한 담론이 부재하였다.

나아가 장애리(2025)는 샤론 최의 통역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에 달린 3,762건의 댓글을 키워드 빈도, LDA 토픽모델링 등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질적 사례 분석을 병행하여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는 대중이 직접 작성한 댓글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대중이 인간 통역사를 단순한 기계적 의미 변환기가 아니라 발화자의 의도, 뉘앙스, 문화적 맥락 및 비언어적 요소까지 섬세하게 전달하는 주체로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도 기계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인간 통역사만의 고유한 강점과 핵심 역량인 통역 언어 능력, 이해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도출해 내었다.

2.2. 통역사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자기 인식

기존 선행연구에서 통역사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자기 인식은 국제회의 통역사의 직업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인식, 비즈니스 통역 현장에서 문화 중재자로서 자신

의 위치와 권한을 규정하는 ‘역할 인식’(안희연 2021), 조직 내 요인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살펴본 ‘자기지위’(임세인 2018), 사회적 평가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직업정체성’(배소연 2026), 그리고 고용 형태나 근무 환경 등 실질적인 근로 조건에 바탕을 둔 ‘직업만족도’(이지은 2017) 등 다양한 분류로 다루어져 왔다.

전통적으로 통역사의 역할은 초기 통역 정의에서 시사하듯, 원 발화를 등가의 목표언어 발화로 전달하는 투명한 도관에 비유되었다(Reddy 1979; Roy 1993; Wadensjö 1998). 그만큼 통역의 정확성과 중립성이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물론, 커뮤니티 통역을 중심으로 투명한 도관 수준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연구도 등장하였다(Davidson 2000; Angelelli 2004). 커뮤니티 통역에서는 중립성 상실로 인한 문제가 종종 제기되어 왔으며 (Flores et al. 2012; Lee et al. 2016; Hale et al. 2019; Lee and Huh 2021), 일부 비즈니스 통역의 경우 국제회의 통역과 달리 통역사 중립성에 대한 시각차도 제시된 바 있다(최진철 2013; 안희연 2021). 안희연(2021)은 비즈니스 통역사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기보다 숙련된 소통 전문가로서 능동적인 문화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역할 유형을 게이트 키핑, 상호 작용 중 조율, 협상 대상자 발화 해석, 사용자 발화 해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만, 비즈니스 통역은 거래 성사라는 비즈니스 목적 달성과 다양한 중재가 필요한 비즈니스 협상에서 진행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 통역 상황에까지 일반화하기 어렵다(고영민 2004: 75; Takimoto 2008). 더 나아가, 비즈니스 통역의 경우에도 “페어 플레이”에 기초한 통역을 수행하지 않으면 협상 대상자의 신뢰가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역에 있어 기본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이다(안희연 2021). AIIC와 AUSIT의 윤리 헌장에 명시되어 있듯, 전문 통역사는 정확하고 중립적이며 윤리적인 통역을 수행하는 것이 업계와 학계의 여전한 통념이다(AUSIT 2012; AIIC 2026). 전문 통역사들이 동시 또는 순차 통역에서 개입하는 경우도 소통 촉진을 위한 행위인 중복 요소 생략, 문장 구조 바꿔말하기, 상황에 따라 체면을 위협하거나 공격적인 언어 완화, 용어·일화·속담·문화적 지시어에 관한 부연설명, 발화자의 명백한 실수 교정에 국한되며, 이는 중립성을 잃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Gurianova 2010). 이와 같은 인식과 접근은 AIIC 통역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AIIC 통역사들은 용어, 문법, 스타일상의 정확성, 유창성, 원문 의미 유지 및 논리적 결속성을 중시하였으며, 대다수가 자신의 역할을 소통 촉

진자나 연결고리, 중재자 등 소통의 조력자에 국한하여 인식하였다(Zwischenberger 2009; Pöchhacker and Zwischenberger 2010/2015).

전술한 통역사의 엄격한 역할론은 전문 통역사들의 직업 지위에 관한 자기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EU 집행위원회 및 유럽의회 소속 국제회의통역사의 직업지위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통역사들은 자신의 직업이 갖는 권력 및 영향력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는 통역 행위가 메시지를 언어적으로 중재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신념에 근거한다(Dam and Zethsen 2013). 해당 연구에서 통역사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자기 인식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통역 사용자 및 고객의 통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물론, 통역사 역할의 중요도에 대한 자기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이 또한 통역 수행 현장에서의 사용자 태도 및 인식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Dam and Zethsen 2013).

이러한 외부 인식의 영향력이 객관적 현실보다 통역사 집단 내부에서 구성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도 있다. 배소연(2026)은 국제회의통역사의 직업이미지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통역사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연구에 따르면 통역사는 고도의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과 현실적 조건에 대한 취약성이 혼재된 이중적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전문성’이 외부의 실제 무관심이나 부정적 평가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집단 내부에서 생성되고 강화된 ‘심리적 현실’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반면 통역사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내외부 인식의 간극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연구도 있다. 임세인(2018)의 연구에서는 인하우스 통번역사들이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받고 전문직으로서의 강한 자부심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체감하는 조직 내 직업지위는 자기 자신의 평가보다 사용자의 인식과 시선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번역 전담 부서의 독립 여부나 조직 내 호칭(전문성을 인정받는 ‘통번역사’ 대신 ‘에디터’나 ‘OO씨’로 불리는 경우)과 같은 조직적 요인이 통역사의 직업지위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사결정권자나 사용자의 ‘언어 유창성(외국어 구사력)’에 따라서도 스스로의 직업지위가 크게 달라진다고 느꼈다. 가령, 사용자의 외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통번역사의 고도화된 전문성을 알아보고 의존도가 높아져 대우가 좋아지는 반면, 사용자의 외국어 구사력이 낮을 경우에는 통번역의 필요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통번역사가 구사하는

전문적인 표현을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통번역사의 전문성이 폄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임세인 2018).

이지은(2017)은 140명의 전문 통역사(프리랜서 56명, 인하우스 84명)를 대상으로 고용 형태 및 직무 환경에 따른 직업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 요인으로는 성차별 없는 환경, 직업 유지 의사, 업무에 대한 흥미,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꼽혔다. 반면, 부정 요인으로는 낮은 직업 안정성과 비관적인 미래 전망, 제한적인 승진 기회 및 보수 등 외적 보상과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었다. 특히 고용 형태별로 프리랜서(평균 3.40)가 인하우스(평균 3.13)보다 직업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통역사의 직업만족도는 내적 자부심 못지 않게 외부적인 직무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 통역사에 대한 외부 대중의 사회적 인식과 통역사 집단 내부의 자기 인식 간에는 유의미한 구조적 간극이 존재한다. 대중은 대중매체를 통해 통역사를 고도의 전문직이자 선망의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외모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와 같은 피상적 이미지에 주목하는 이중적 경향을 보인다. 반면 통역사 집단은 스스로를 단순한 기계적 언어 변환기를 넘어 소통을 능동적으로 조율하는 문화 중재자로서 강한 직업적 자부심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역 현장에서 이들의 직업 정체성은 사용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나 조직 내 부여되는 호칭 등 외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통역사를 둘러싼 인식의 구조가 단일하지 않으며, 외부 대중의 사회적 인식과 통역사 집단의 자기 인식 사이에는 지속적인 차이가 존재해왔으며 인식 간극의 재생산 구조가 형성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 청문회 통역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매개로 한 일반 대중과 현직 전문 통역사 집단의 인식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적인 소통 현장에서의 전문 통역 서비스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쿠팡 청문회 유튜브 영상의 댓글 조사를 통해 일반 시청자의 청문회 통역을 둘러싼 인식을 분석하고, 인터뷰 조사를 통해 현직 통역사의 인식에 대해

여 분석함으로써 청문회 통역에 관한 일반인과 전문 통역사 간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3.1. 유튜브 영상 댓글 분석

3.1.1. 분석 도구와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쿠팡 청문회 통역 관련 영상의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26년 1월 14일, 유튜브에서 ‘쿠팡’, ‘청문회’, ‘통역사’ 키워드로 검색 가능한 롱폼 및 쇼츠 영상을 최대한 수집하였다. 수집된 영상은 청문회 현장 생중계, 현장 클립, 뉴스 보도, 방송사 토론 중심이었다. 이 중 댓글과 대댓글 합계가 10개 미만으로 답론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영상을 제외하고 총 54개의 영상을 선정하였다(부록 1 참조). 이후 해당 영상들의 댓글을 크롤링(crawling)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크롤링, 전처리, 키워드 분석, LDA 분석을 위한 파이썬 코딩 작업에 AI 코딩 도구인 커서(Cursor)를 이용하였다. 크롤링은 셀레니움(Selenium)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분석의 기본 단위인 댓글을 의미하는 ‘문서(document)’ 기준, 크롤링 된 원본 문서는 11,011개였다.¹⁾

3.1.2. 데이터 전처리

이후 파이썬 환경에서 규칙 기반 전처리를 실시하였으며, 반복문자 정규화, 이모지/특수문자/문장부호 제거, 감탄사 단독 댓글 제거, 슬랭/약어/불용어 제거, 고유명사의 접사 정규화 등을 수행하였다. 품사별 빈도 확인 단계에서는 형태소 분석기(kiwipiepy 또는 KoNLPy의 Okt)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전처리 작업을 거친 후 남은 문서는 총 10,897개였다.

3.1.3. 키워드 분석

데이터 전처리 후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위 키워드 분석은 댓글에 나타난 주요 관심사와 핵심 주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서에 대하여 핵심 키워드를 비롯하여 동사와 형용사 등 품사별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키워드 빈도 분석은 카운터(Counter), 형태소 처리는 KoNLPy(일부 단계는

1) 크롤링 대상에서 댓글에 대한 대댓글은 제외하였는데, 이는 대댓글은 댓글에 대한 상호참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본 영상에 대한 의견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권상미 2020: 9).

Kiwi)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3.1.4. LDA 토픽 모델링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확률적으로 주제를 추출하는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최원준 외 2018), 국내 통번역 연구에서는 권상미(2020, 2023, 2024)와 장애리(2025)가 유튜브 댓글 분석에 활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문회 유튜브 영상의 댓글 데이터의 주요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은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우선 전체 문서 기반의 말뭉치에 대하여 주제별로 분류하는 LDA 토픽 모델링을 1단계로 실시하였다. 1단계 결과가 통역 외의 정치 주제로 다소 분산됨에 따라 2단계에서는 ‘통역’, ‘통역사’, ‘영어’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만 추려 통역 하위 집합 말뭉치를 만들고 2단계 LDA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에서는 명사 기반 문서 표현을 사용하여, 추출된 명사가 없거나 1개인 댓글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후 1단계 LDA 토픽 모델링에서는 총 8,346개의 문서를 사용하였다. 2단계에서는 키워드, ‘통역’, ‘통역사’, ‘영어’가 포함된 문서를 추려 총 1,399개의 문서를 분석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에는 젠심(Gensim)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에서는 주제 개수인 K값을 찾아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토픽 일관성 지표인 c_v coherence를 활용하였고, 이와 더불어 연구자가 여러 K값을 대입해가며 최적의 K값을 선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1단계에서는 K=6, 2단계에서는 K=5로 최종 설정하여 LDA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pyLDAvis를 이용해 토픽간 거리지도를 생성하여 토픽 모델링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한편, 2단계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주제별로 대표적 댓글에 대한 정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댓글에 할당된 해당 토픽 비율이 80% 이상인 댓글 1,054개의 문서를 선별한 후 질적 분석을 실시하여 정량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세부 주제를 추가로 도출하였다.2)

2) 하나의 댓글 안에는 다양한 토픽이 공존할 수 있으며, LDA 분석에서는 각 댓글이 각 토픽에 속할 확률분포가 계산된다. 숫자가 클수록 해당 댓글이 다른 토픽보다 특정 토픽 하나에 뚜렷하게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특정 댓글이 토픽 1에 80%, 토픽 2에 10%, 토픽 3에 5%, 토픽 4에 3%, 토픽 5에 2%로 분류되어 있다면, 해당 댓글은 토픽 1의 특성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는 댓글로 해석할 수 있다.

3.2. 인터뷰 조사

3.2.1. 인터뷰 참여자

쿠팡 청문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유튜브 댓글을 통해 수집하고, 이에 대한 통역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통역사의 입장과 의견은 고용 형태와 경력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따라 총 6명의 인터뷰 참여자를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섭외하였다. 프리랜서와 인하우스로 일하고 있는 통역사 중 5년 이하의 저년차, 약 7~8년 경력의 중년차, 15년 이상의 시니어 통역사를 각각 한 명씩 섭외하였다. 인하우스 시니어 통역사의 경우, 인하우스로 15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어 현재는 프리랜서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인하우스 통역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통역사를 섭외하였다. 인터뷰 내용의 균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쿠팡 청문회 통역과 같은 한국어-영어 통역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고용 형태와 경력은 다음과 같다.

표 1. 인터뷰 참여자 개요

	고용 형태	실무 경력
참여자 1	현재 프리랜서	23년 (인하우스 약 15년)
참여자 2	프리랜서	4년
참여자 3	프리랜서	22년
참여자 4	인하우스	3년
참여자 5	프리랜서	8년
참여자 6	인하우스	7년

3.2.2. 데이터 수집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한 후 2026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집 이후 참여자들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쿠팡 청문회에 관한 유튜브 영상 시청 및 해당 사안에 관한 뉴스 파악 등 사전 배경지식을 갖추고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다. 또한 연구자들이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후 반구조화 방식으로 인터뷰 질문을 제시할 것임을 사전에 고지받았다. 인터뷰 진행 전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 서명을 받았다. 참여자 1만 대면으로 참여하였으며 나

머지 참여자는 줌과 구글미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모든 인터뷰 내용은 네이버 클로바노트를 통해 녹음 및 전사된 후 분석되었다.

인터뷰 방식은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핵심 질문의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참여자의 발화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꼬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반구조화 인터뷰 방식을 채택하였다. 질문 유형은 LDA 분석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 대중의 댓글에 대한 통역사들의 반응과 의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2.3. 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정량 데이터에 대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핵심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일반 대중과 통역사의 인식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LDA 분석 결과 도출된 주제를 기준으로 인터뷰 데이터를 1차적으로 수집·분류하였으며, 이후 각 핵심 주제별로 인터뷰 응답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절차는 브라운과 클라크(Braun and Clarke 2006)의 주제분석 방법론에 따라 데이터 정독, 예비 코딩, 잠재적 주제 탐색, 주제 검토, 주제 도출, 보고서 작성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우선 전사된 인터뷰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정독하면서, LDA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에 부합하는 유의미한 문장과 핵심 발언을 식별하여 해당 범주에 매핑하였다. 이후 범주를 조정하고 하위주제를 탐색하면서 참여자들의 인식을 구조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 간의 공통된 인식과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원시 자료를 선별적으로 추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키워드 및 토픽모델링

4.1.1. 키워드 분석 결과

전체적인 키워드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쿠팡 청문회 및 통역에 관한 영상의 댓글이었던 만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쿠팡’이었다. 또한 ‘통역’과 ‘통역사’가 각각 422회와 370회로 7, 8위를 차지하였는데, 이 두 키워드를 합하면

792회로 3위에 해당하며, 통역이 언어에 관련된 것인 만큼 ‘영어’ 키워드와 합하면 총 1,402회로 통역과 언어에 관한 키워드군의 빈도 순위는 일반 시청자들의 통역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그런데, 쿠광이나 통역보다 더 높은 관심을 받은 것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 관한 키워드였다. 질의 과정에서 영어로 직접 소통이 가능했던 ‘이준석’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 ‘국회의원’, ‘국회’, ‘민주당’ 등 정치권 키워드군의 총 빈도는 2,658회로 통역 키워드군의 두 배에 가깝다. 쿠광이 미국 기업인만큼 국가 관련 키워드도 상당하여, ‘한국’, ‘대한민국’, ‘나라’ 등 국가 키워드군은 총 1,097회를 기록하였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청문회였음에도 정작 ‘개인정보’ 키워드 빈도는 169회로 19위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이처럼 상위 20대 키워드는 분석대상 영상의 댓글이 통역뿐 아니라 정치와 국가에 관한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상위 20대 키워드 순위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쿠광	1,956	11	국회	318
2	이준석	1,049	12	나라	318
3	영어	611	13	미국	237
4	최민희	580	14	민주당	229
5	국회의원	482	15	수준	222
6	한국	429	16	정부	191
7	통역	422	17	김범석	178
8	통역사	370	18	없다	170
9	대한민국	350	19	개인정보	169
10	청문회	343	20	알리	135

정치권, 통역, 국가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가 상위를 차지한 만큼, 동사와 형용사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 순위도 긍정과 부정 등 감정 평가 담론을 담은 어휘들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표 3에서는 동사와 형용사 키워드를 기초로 한 긍정/부정 평가 담론 키워드 순위를 제시하였다.

표 3. 상위 긍정·부정 담론 중심 10대 키워드 순위

순위	긍정 담론		부정 담론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잘한다	66	부끄럽다	79
2	응원합니다	55	창피하다	64
3	대단하다	26	쪽팔린다	49
4	멋지다	19	한심하다	30
5	감사합니다	16	싫다	22
6	좋다	12	망신이다	13
7	멋있다	15	무식하다	12
8	최고다	11	문제다	11
9	잘했다	8	짜증난다	11
10	좋습니다	4	탈퇴했다	11

긍정 담론의 경우, 쿠광이나 특정 국회의원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맥락이 대부분 이었고, 부정 담론은 ‘탈퇴했다’ 키워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청문회 현장의 국회 의원들을 비판하는 담론들로 추정된다. 이는 긍정/부정 담론 모두 통역이나 통역 사보다는 정치인 지지 또는 비판 맥락에서 담론이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절에서는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유튜브 댓글이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4.1.2.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토픽 모델링은 전체 말뭉치 분석과 통역 중심 말뭉치 분석의 두 단계로 수행되었다.

4.1.2.1. 전체 데이터 분석

1단계로 전체 말뭉치에 대하여 K=6으로 설정하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6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표 4. 1단계 전체 말뭉치 LDA 분석

번호	주제	상위 10 대 키워드(가중치/확률값)	문서수
1	쿠광 유출 사건 관련 기업 및 국가 논쟁	쿠광(0.137), 기업(0.045), 정보(0.028), 국민(0.024), 미국(0.022), 개인(0.021), 한국(0.018), 정부(0.015), 탈퇴(0.015), 중국(0.015)	1,688
2	정치인 비판 및 평가	사퇴(0.040), 미국(0.032), 생각(0.030), 정치(0.027), 한국(0.026), 민회(0.025), 수사(0.020), 여자(0.019), 대답(0.016), 얼굴(0.015)	818
3	청문회 통역 수행 및 운영 문제	통역(0.104), 통역사(0.079), 쿠광(0.045), 누구(0.019), 직원(0.018), 문체(0.018), 상대(0.015), 시간(0.012), 사용(0.012), 정치(0.011)	1,468
4	정치인 발언 및 정치적 자질 논쟁	최민희(0.133), 영어(0.056), 자리(0.046), 인간(0.032), 공부(0.025), 축의금(0.023), 양자(0.022), 나라(0.020), 위원장(0.018), 역학(0.018)	1,330
5	국회 청문회 및 의원 영어 능력 논쟁	국회(0.091), 의원(0.088), 이준석(0.053), 수준(0.044), 영어(0.036), 청문회(0.030), 국회의원(0.028), 국민(0.023), 질문(0.022), 소리(0.019)	2,006
6	쿠광 사건을 둘러싼 국민 감정	쿠광(0.063), 나라(0.045), 국민(0.039), 댓글(0.029), 무시(0.024), 망신(0.018), 조사(0.016), 알리(0.015), 어디(0.015), 예의(0.014)	1,036

1단계 분석에서 K값을 조정하며 주제를 보다 명확하게 분류하고자 하였으나, 전체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토픽 분석에서는 통역보다는 정치인 및 국가적 감정이 중심을 이루어 통역과의 연관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만큼 쿠광 청문회에 관한 시청자의 관심은 통역 수행이나 통역사에 관한 측면보다 정치인, 국가, 국민 감정 측면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석된다. 그럼에도 청문회 통역과 통역사에 관한 댓글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2단계 LDA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4.1.2.2.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4.1.2.2. 통역 중심 데이터 분석

2단계 분석에서는 청문회 통역과 통역사를 중심으로 한 댓글에 집중하기 위하여 ‘통역’, ‘통역사’, ‘영어’ 중 하나라도 포함하는 댓글을 모두 추출하여 하위집합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 LDA 분석을 실시하였다. K=5로 설정하여 LDA 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5와 같이 5개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표 5. 2단계 통역 중심 말뭉치 LDA 분석

번호	주제	상위 10 대 키워드(가중치/확률값)	문서수
1	통역 수행 및 운영 담론	통역(0.113), 통역사(0.046), 영어(0.028), 이준석(0.026), 쿠팡(0.025), 국민(0.023), 질문(0.015), 시간(0.014), 국회(0.014), 의원(0.014)	449
2	통역 결과물 및 통역 활용 관련 신뢰성 논쟁	통역(0.048), 문제(0.044), 쿠팡(0.024), 통역사(0.023), 국민(0.010), 최민희(0.008), 로저스(0.007), 한국(0.007), 무능(0.006), 이재명(0.006)	49
3	통역사 중립성/전문성 담론	통역사(0.103), 통역(0.093), 동시(0.018), 최민희(0.015), 상대(0.013), 국민(0.010), 쿠팡(0.009), 한국(0.008), 문제(0.008), 생각(0.008)	339
4	통역사에 대한 공격 압박 논쟁	공부(0.067), 통역(0.058), 양자(0.049), 영어(0.046), 역학(0.043), 시간(0.022), 최민희(0.015), 동시통역(0.012), 윤색(0.009), 언어(0.007)	97
5	정치인 영어 능력 및 자격 담론	영어(0.200), 의원(0.050), 이준석(0.042), 국회(0.034), 수준(0.017), 질문(0.014), 실력(0.012), 국회의원(0.011), 자랑(0.010), 자리(0.010)	465

그림 1은 2단계 토픽 모델링 결과를 시각화한 토픽모델링 거리지도이다. 각 주제 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구분이 잘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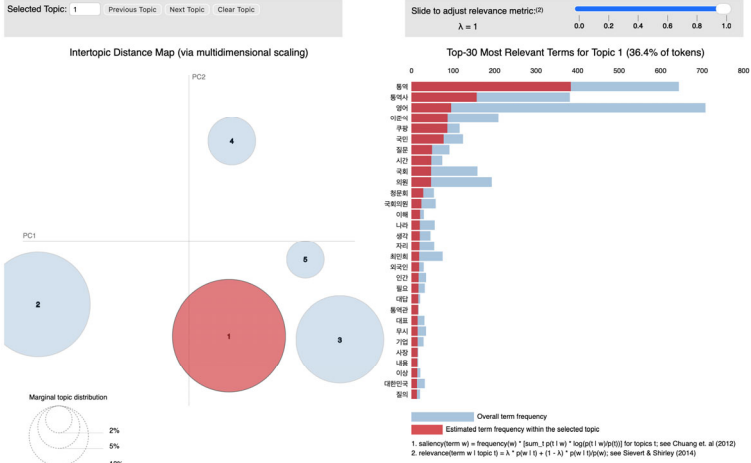


그림 1. 2단계 LDA 토픽 모델링 거리지도(주제 1)

다만 각 주제는 세부 주제로 추가적인 분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주제의 댓글에 할당된 토픽 비율이 80% 이상인 댓글 1,054개를 중심으로 정성분석을 실시하고 세부 주제를 추가로 도출하였다(표 6 참조).

표 6. 2단계 통역중심 LDA 분석 세부 주제 분류

번호	주제	세부주제
1	통역 수행 및 운영 담론	1.1 통역 품질
		1.2 통역 필요성
		1.3 요약·선별 통역 요구
		1.4 시간 지체
		1.5 현장 통역사 존중
2	통역 결과물 및 통역 활용 관련 신뢰성 논쟁	2.1 왜곡된 통역
		2.2 쿠팡의 의도적 통역 활용
3	통역사 증립성/전문성 담론	3.1 통역사의 증립성 의심
		3.2 통역 모드에 따른 인식차
		3.3 통역사 전문성 옹호

4	통역사에 대한 공적 압박 논쟁	4.1 의원 비판
		4.2 통역 품질 비판
5	정치인 영어 능력 및 자격 담론	5.1 정치인의 영어 능력 부족 비판
		5.2 정치인의 영어 능력 과시 비판

통역과 통역사에 관한 대부분의 댓글은 청문회 현장에서 쿠광 대표 및 임원과 동석한 쿠광 측 통역사들과 그들이 수행한 순차통역에 집중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청문회 당시 통역사의 통역 수행과 국회의 통역 운영 방식 중심이었으며, 이에 대한 현장 상황과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한 댓글이 주를 이루었다. 각 세부 주제마다 찬반 의견이 혼재되며 첨예한 양상이 나타났다. 먼저, 통역 품질(1.1)에 대해서는 전문 통역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통역이 이루어졌다는 옹호 의견이 있는 반면, 대출이자 관련 발언에서 오역이 있었다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센스 없이’ 통역 한다는 등 통역 품질에 대한 비난도 제기되었다. 통역 필요성(1.2)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참여한 의원 모두가 영어에 능숙하지 않고 국민 역시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역이 필수적이라는 의견과, 제한된 시간과 의례적인 발언으로 인한 지체를 고려할 때 통역 절차를 생략하고 질의를 이어간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타났다. 요약 선별 통역 요구(1.3)와 시간지체(1.4) 역시 통역 필요성(1.2)과 비슷한 맥락에서 상반된 의견이 혼재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역사에 대한 존중 부족(1.5)에 관한 의견도 교차하였는데, 통역사에게 호통을 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매국’과 같은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며 통역사의 태도를 비난하는 댓글도 함께 나타났다.

두 번째 주제는 통역 결과물 및 통역을 활용하는 상황에 대한 신뢰성 논쟁으로, 주로 통역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다는 의견(2.1)과 쿠광 측에서 통역을 언어적 장벽으로 활용하여 불리하면 통역사를 탓하며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한다는 의견(2.2)이 주를 이루었다.

세 번째 주제는 통역사의 중립성에 관한 논쟁으로 구성되었다. 쿠광 측 통역사가 쿠광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중립성을 상실하였으며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통역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또한, 쿠광 입장에서는 상대측 통역사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 통역사를 대동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등, 통역사의 중립성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확인되었다(3.1). 한편, 청문회에서 사용된 통역 방식과 관련하여,

‘동시통역기’³⁾나 ‘AI통역’을 언급하면서 해당 통역 모드에 대한 신뢰성 찬반 의견도 제기하였다(3.2). 그런 한편, 통역사의 중립성 맥락에서 통역사가 실력 좋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는 의견과 전문통역사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며 통역사를 옹호하는 의견이 상당수 확인되었다(3.3).

네 번째 주제는 의원의 통역사 질타에 대한 찬반 논쟁이다. 통역사가 통역을 제대로 못했다고 의원에 동조하는 의견도 있었지만(4.2), 의원의 영어 실력 등을 거론하며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이 상당했다(4.1). 다섯째 주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의 영어 능력이며, 정치인들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비판과(5.1) 영어 실력을 과시하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5.2)이 공존하였다. 특정 정치인이 영어를 직접 구사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통역사에게 통역을 일부 생략할 것을 요구하거나, 영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한 것이라는 대중의 비판적 시각이 담긴 것으로, 이 주제는 다시 전문 통역 서비스의 필요성과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는 담론과 연결된다.

지금까지 키워드 분석과 LDA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청문회 통역에 관한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 4.2절에서는 4.1절의 키워드 및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현직 통역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일반 시청자 의견과 비교하며 분석하고자 한다.

4.2. 통역사 인터뷰

통역사 인터뷰 분석 결과, 통역 수행 운영 담론, 통역사 중립성 및 신뢰성 담론, 통역사 공적 압박 담론, 정치인 영어 실력 담론, 그리고 통역 환경 제도적 개선 담론으로 주제가 분류되었으며, 본 절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⁴⁾

4.2.1. 통역 수행 운영 담론

본 절에서는 국회 청문회 현장에서 요구된 통역 수행 방식에 대한 전문 통역사들의 인식을 분석한다. 참여자들은 통역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통

3) 청문회에서 전문 통역사들이 동시통역을 제공하였으나, 유튜브 중계에서는 음성만 전달됨에 따라 일부 댓글에서는 통역사나 통역 서비스가 아닌 ‘도구’로 지칭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4) 통역 수행 운영 관련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수렴하였으며, 공통된 의견을 중심으로 4.2절을 기술하였고, 일부 참여자의 의견인 경우 참여자 번호를 명시하였다.

역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국회 측의 통역 생략 및 요약 요구, 불합리한 발언 시간 산정 방식 등 현장 운영 전반에 걸쳐 깊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먼저, 참여자들 모두 증인에 대한 여론이 적대적이고 압박감이 심한 청문회 분위기 속에서도 현장의 통역사가 침착하게 전문성을 발휘하며 통역하였고 통역 품질이 우수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특히, 대중의 비판과 달리 현장 통역사가 과도한 윤문이나 오역, 누락을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이었다.

제가 모든 문장을 다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가 본 그 장면들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게 뭐가 잘못 전달됐다거나 오역이 됐다거나 과하게 윤문이 됐던 부분은 저는 없었던 것 같고. (참여자 6)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엄밀히 통역이 잘못됐다고보다 그냥 워낙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 여론도 안 좋고 민심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역사를 공격했던 것이고. (참여자 2)

진짜 mental breakdown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정말 궁극의 프로페셔널리즘이었다. (참여자 1)

또한, 국회의원들이 통역사의 발화 차례를 임의로 건너뛰는 이른바 ‘통역 패싱(Passing)’과 통역사에게 제기한 인사말 생략이나 요약 요구에 대해, 참여자들은 통역사의 직업 윤리를 위배하는 지시라는 의견을 밝혔다. 통역사는 화자의 발언을 임의로 판단하여 생략할 수 없으며, 특히 모든 발언이 법적 근거가 되고 기록되는 청문회 자리에서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 자체가 증인의 고도화된 발언 전략일 수 있으므로 통역사가 이를 자의적으로 잘라내는 것은 발화자의 의도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참여자 5, 6).

또 청문회다 보니까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외국인 사장이 하는 얘기가 다 이제 그걸 아마 속기를 해서 다 회의록을 작성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진짜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나와야 되잖아요. (참여자 2)

그 불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부분은 통역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답변에서 그 원 화자의 발언 중에 그 부분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인데 (...) 그 비난

이 통역사한테 갈 게 아니라 그 불필요한 말을 한 화자한테만 다이렉트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원 화자와 이 통역사를 제대로 분리해서 보지 않는 시선에서 기인한 일각의 시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5)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는 좀 더 그런 친화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내 발언을 하겠다라는 것도 그 사람의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그 반대로 통역사가 거기서 그 부분 다 잘라버리고 그냥 직설적으로 대답만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그 발언을 처음에 한 발화자의 의도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 6)

위와 같은 청문회 현장과 대중의 댓글 속에서는 통역 패싱과 요약 및 생략 요구가 이루어진 원인으로 통역으로 인한 시간 지체가 지목되었는데, 이에 대해 인터뷰 참여자들은 통역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의원에게 주어진 질의 시간 안에 포함시킨 국회의 시간 산정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순차 통역이 개입되면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점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하고, 통역 소요 시간이 아닌 외국인 증인의 발언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이와 관련해 외국어 통역과 관련한 국회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순차 통역이 들어가면 당연히 시간은 2배로 늘어난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하고. (참여자 1)

한 의원당 정말, 7 minutes per lawmaker, 이거가 만약에 딱 지켜져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역시나 이것도 절차상의 문제인데 (...) 통역 시간을 제외하고 증인의 오리지널 스피치 발언과 의원의 스피치의 합이 7분을 넘지 않는다가 맞을 것 같고. (참여자 3)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거는 왜 외국인이 이런 청문회에 와서 증언을 할 때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가, 합의된 프로세스가 사전에 없었는가가 좀 의문이었습시다. (참여자 6)

4.2.2. 통역사 중립성 및 신뢰성 담론

국회 청문회 당시 대중과 정치권 일각에서 통역 결과물 윤색 및 통역사 중립성

불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일부 대중은 통역사가 사용자, 즉 쿠팡 측에 유리하도록 발언을 고의로 윤색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냈으나, 인터뷰 참여자 대다수는 이는 통역사의 직업 윤리와 현실적 수행 조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측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자리에서 각색을 할 수 있는 통역사는 나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버드 나온 사람도 앉아 있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상황에서 통역사가 아무리 자기가 월급을 받고 있는 회사[라 해도], 그거는 직업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절대 그럴 수 있는 통역사 많지 않다. (참여자 1)

우선, 통역사는 비즈니스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언어 전문가이므로 발언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윤색할 권한이 없고, 설사 증인에게 유리하게 통역하고자 하더라도 통역사 입장에서 무엇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유리한 발언일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참여자 1, 6).

나아가 전문 통역사가 통번역대학원에서 받는 강도 높은 훈련과 현장의 극심한 인지적 압박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윤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참여자 1, 3, 5, 6). 참여자들은 생중계되는 청문회의 민감한 분위기와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통역에 집중하는 데에만 모든 인지적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발언을 유리하게 만들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용을 왜곡할 경우 결과적으로 통역사 자신의 평판과 커리어에 해가 되기 때문에 정확성과 중립성에 반하는 통역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참여자 1, 5). 통역사라는 직업 특성상 한 회사에 장기 근속하기보다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통역사 업계에서 평판이 쉽게 퍼지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 통역사 윤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다른 업계에 비해서 굉장히 이직이나 이런 게 잦은 편이고 (...) 조직의 일원이라는 정체성보다 내가 통역사라는 정체성이 일단 훨씬 쎈 것 같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뭔가 전 국민이 다 보는 너무나 중요한 청문회 자리에서 통역을 일부러 부정확하게 한다든지 윤색을 해서 회사의 이익을 그렇게까지 해줘야 될 그런 유인이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참여자 5)

참여자들은 공통으로 실제 청문회 현장에서 수행된 통역 결과물 역시 한 쪽에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인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논란이 된 영상의 발화를 따져보았을 때 크게 중립성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거나 왜곡한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참여자 1, 3, 5는 설사 통역사가 고용된 회사 측에 유리하게 통역을 한다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문장을 정리해서 명료하게 전달하거나 명백한 실수를 바로잡는 정도에 그칠 뿐 연사의 원 발화를 통역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다며 통역사의 고의적 왜곡 가능성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참여자 2와 6은 고의적인 왜곡은 없을지라도 고용 주체에 따른 미세한 뉘앙스 편향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국회 측에서도 독립적인 통역사를 섭외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좀 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그 정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오리지널 스피치를 바꿀 수는 없어요.
(참여자 3)

청문회 상황에서 위스퍼링 통역에 대한 오해로 인한 통역사 비난도 있었는데, 대다수 참여자는 당시 통역 모드가 효과적이었다고 보았다. 다수인 한국어 화자를 위해서 순차 통역으로 정확성을 높이고, 소수인 영어 화자에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위스퍼링 통역으로 진행한 것이 적절했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그 사장의 발언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발언은 순차로 하고 그러면 그 내용이 어쨌든 회의록이나 이런 데 다 기록이 될 것이고 반대로 거기서 사실상 외국인은 그 사장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거기 쿠팡 사장한테 하는 질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위스퍼링으로 하는 게 좀 시간 절약 차원에서 좋았을 것 같고요. (참여자 2)

4.2.3. 통역사 공적 압박 담론

국회 청문회 현장에서 통역사는 공적 압박을 겪었고 이를 지켜본 다른 통역사들도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이번 사태에서 통역사가 정치적 기선 제압과 대중적 공분 사이에서 희생양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들이 통역의 흐름을 끊거나 통역사를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은 국회와 쿠팡 간의 관계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압박 전술이었다는 것이다. 즉, 통역사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증인을 압박하기 위해 통역사가 신경전의 소재로 쓰였다는 것이다.

사실 통역사가 그 전체 문제의 핵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라 그러죠? 좀 신경전의 소재로 쓰인다거나, 어쨌든 좀 부수적인 희생양으로 쓰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자 6)

이러한 공적 압박은 대중과 정치권이 통역사와 증인을 철저히 분리하지 못하는 동일시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역사는 화자의 발언을 1인칭 화법으로 전달해야 하는데, 통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로 인해 증인과 통역사를 한 팀으로 묶어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발화자가 한 불필요한 발언에 대한 분노가 통역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결과를 낳았다.

감정이 좋지 않거나 그런 회의에서는 화자와 제가 정말 명확하게 분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막 일부러 정말 사람 눈을 보지 않고 통역을 할 때도 있고, ‘지금 제가 그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시각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요. (참여자 5)

그 사람의 말을 1인칭으로 전달하잖아요. 원팀, 원팀. 그 사람이 곧 통역이고 통역이 곧 이 사람 (...)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동일시할 수밖에 없다. (참여자 1)

나아가 참여자들은 대중의 비난이 통역 품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기보다는 철저히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이 통역에 관심이 있어서 통역사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가진 정치적 렌즈나 특정 기업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난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적대적인 환경에 노출된 현장 통역사의 심리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강한 동질감과 충격을 호소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상황에서 통역사의 얼굴이 무분별하게 유튜브 쇼츠 등으로 확산되고, 근거 없는 오역 논란으로 직업적 평판이 공격받는 상황은 당사자에게 잊기 힘든 극심한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가 나름 그래도 백센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나도 그걸 보고 몇 번을 지속해서 시청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간접 PTSD를 겪을 정도였다. (참여자 3)

그 이후에 그게 다 기록이 남아서 이렇게 방송도 타고 자꾸 소셜 미디어에

재생산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 통역사분은 잊기 힘든 고통스러운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여자 5)

4.2.4. 정치인 영어 실력 담론

청문회 사태를 계기로 대중 일각에서 정치인의 영어 실력 필요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다. 일부 대중들은 국회의원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해 통역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냈으나, 참여자들은 이러한 비난이 정치인의 본질적 역할과 공적 의사소통에서의 통역 필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우선, 정치인의 본업은 외국어 소통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통한 국정 운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참여자들은 국회의원이 통역사를 대동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대중의 반응은 영어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교육열이 높은 한국 사회 특유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의원에게 영어 능력을 필수 자질로 요구하게 될 경우, 정작 정치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인 문제 해결 능력, 분석적 사고 등을 갖춘 인재들이 배제될 수 있으며 외국어 소통은 전문 가인 통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에 대한 스탠다드가 가끔은 우리나라 사회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영어 잘해야 돼 또 영어 못하면 안 돼 영어 못하면 부끄러운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여자 4)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공식 석상에서 자국어인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자 원칙이라는 분석이 있었다(참여자 1, 3). 실제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정치인들도 많지만,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중이기에 의도적으로 자국어인 한국어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대표성을 띠는 자리에서 국가의 위상을 지키는 행위로 해석된다.

나라를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언어를 일부러라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참여자 1)

저는 가끔적이면 통역사 오피셜 미팅 동안에 오피셜 어젠다를 얘기할 때는 통역사를 통해서 미팅하시라. (...) 그래야 또 공식적으로 버전도 한국어 버전

이 남잖아요. (...) 나중에 칵테일 파티 하고 그럴 때 본인의 말로 같이 이제 네트워킹 하는 거는 매우 좋다. (참여자 3)

또한, 참여자들은 완벽한 원어민 수준의 이중언어 구사자가 아닌 이상, 공식적인 의제를 다루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통역사를 거쳐 소통하는 것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절차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다. 참여자들은 가벼운 네트워킹이나 인사 자리라면 직접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겠지만, 법적 책임과 공식 속기록이 남는 청문회나 고위급 회담에서는 사정이 다르다고 하였다. 직접 소통을 시도할 경우 치명적인 소통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통역사를 통해 정확한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것이 공적 상황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4.2.5. 통역 환경 제도적 개선 담론

참여자들은 또한 청문회 사태를 통해 드러난 통역 환경의 문제점을 짚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참여자들은 국회에 외국인 증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비가 되지 않았으며 합의된 프로토콜 마련과 통역사 보호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했다.

하나의 제안은 외국인 증인 출석 시 적용할 명확한 사전 가이드라인과 온보딩 절차의 도입이다. 참여자들은 청문회에서 시간 배분이나 통역 모드에 대한 사전 합의된 프로세스가 매우 부족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 나아가, 향후 통역 시간 산정 방식, 발언의 제약 조건 등을 명시한 국회 차원의 공식 길잡이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내에 청문회를 할 때 통역을 어떻게 쓰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럴 때는 질의 응답 시간에 몇 분을 넣을 것이며, 누구누구의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며 (...) 가이드라인이, 그 문서가 필요하다. (참여자 1)

순차통역은 이런 거고, 동시통역은 이런 거고, 오늘 우리가 할 통역 셋팅은 이런 거고, 이러한 주의사항이 있고, 아무리 통역을 우리가 잘 하더라도 이런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를 온보딩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참여자 4)

또 다른 제안은 통역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데포지션(증언녹취) 방식 및 교차 검증 시스템의 도입이다(참여자 3). 참여자들은 통역사 한 명에게 모

든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를 비판하며, 국회 측과 증인 측이 각자의 독립적인 통역사를 대동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참여자 2, 3, 5, 6). 이러한 구조적 장치는 윤색이나 편향에 대한 소모적인 불신을 원천 차단하고 공적 절차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통역사를 보호하기 위한 동시통역 부스 도입과 신원 보호 장치 마련도 제안되었다. 참여자들은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론전의 최전선, 그것도 생방송에 통역사가 아무런 보호 없이 노출된 현실에 개탄하며, 신상 털기나 악플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역사를 카메라 화면에 잡히지 않게 분리하거나(참여자 1, 5, 6), 전면적인 방음 부스를 설치하여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참여자 1, 3, 4, 5). 또한 통역사의 인지 부담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휴식과 교대 근무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참여자 1, 5).

나는 통역사 보호를 위해서 이걸 순차로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보호를 위해서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참여자 1)

통역사들이 최소한 그 생중계되는 화면에는 안 잡히게라도 하면. (참여자 6)

통역사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교대 인원이 한 두 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5)

그 외, 통역사 섭외를 위한 예산 할당(참여자 1, 5), 한국어와 외국어 양 언어에 대한 속기록 작성(참여자 3, 5), 그리고 정식 통역 교육 이수 등 전문통역사 자격요건 필요성(공통)도 제기되었다.

5. 논의

5.1. 전문 통역사와 일반 대중 인식 간 공통점과 차이점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전문 통역사와 일반 대중 간 청문회 통역에 관한 인식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발견되었다. 다만, 대중의 인식은 다양한 이유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양단으로 갈린 반면 전문 통역사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관되게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역 필요성, 통역사 중립, 통역 전문성 존중, 국회의원의 영어 역량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우선, 통역 필요성에 있어 전문 통역사들과 일부 대중은 청문회 통역이 법적인 증언 효력을 가지는 자리이며, 청문회에 배석한 모든 의원과 생중계를 통하여 이를 시청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속기록으로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별 의원들의 영어 능력과는 무관하게 통역이 빠짐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반면, 질의 시간제한 및 의례적인 발언은 핵심에서 벗어나는 점에서 통역을 건너뛰어도 된다는 댓글도 다수 있었다. 통역사들은 이에 대하여 의례적 인사말로 정의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 법적 효력을 갖는 청문회 자리에서 통역사가 자의적으로 발언을 편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발화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통역 윤리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간 지체가 문제라면 청문회 계획 시 의원 질의시간 제한을 늘리거나 처음부터 동시통역으로 기획했어야 한다며 외국인 증인 참여시 통역을 고려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통역사 중립성의 경우 통역 품질과 밀접히 연관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통역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청문회 순차통역의 품질에 대하여 문제 삼을 만한 오역 없이 잘 이루어졌으며, 중압감이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통역했던 것을 고려하면 매우 훌륭히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었다. 댓글에서도 통역 품질을 옹호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왜곡’, ‘윤색’, ‘날조’, ‘조작’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쿠광 측 통역 품질을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는 통역 중립성에 관한 논란과 연결되었다. 댓글에서는 쿠광 측이 고용한 통역사라는 이유로 ‘매국노’, ‘한통속’, ‘대변’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통역이 쿠광에 유리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쿠광이 통역을 방패막이 삼으려 통역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비난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통역사들은 자신들이 받은 교육과 간의 통역 경험을 토대로 통역사는 의사소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용주가 누구인가와 무관하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고용주나 고객에게 유리한 통역이라 하더라도, 발언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는 범위 내에서 통역사의 언어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내용을 왜곡하여 통역하면 결과적으로 통역사 자신의 평판과 커리어에

해가 되기에 통역사는 정확성과 중립성에 반하는 통역을 할 동기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셋째, 전문 통역사에 대한 존중 문제의 경우, 통역사가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는 장면에서 이에 동조하며 통역 품질, 통역사의 태도, 또는 표정까지 비난하는 댓글도 많았던 반면, 통역사의 실력과 전문성을 옹호하며 통역사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댓글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 통역사들은 해당 장면을 보며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PTSD’나 ‘트라우마’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정도의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호적이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오역이 아닌 부분이 윤색 통역으로 지적되고 해당 장면이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속츠로 확산되고 악플까지 달리는 상황이 통역사 입장에서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통역사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넷째, 국회의원의 영어 실력 문제에 있어, 댓글에서는 찬반 의견이 교차하였다. 통역사들은 이에 대해 의원들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모두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청문회와 같은 공적 현장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적 자리에서는 의원 개인의 영어 실력 발휘보다는 통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5.2. 인식 간극의 원인

앞서 정리한 대중과 전문 통역사 간 인식의 간극이 발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쿠팡 청문회라는 상황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역 품질과 통역사 중립성에 관해서는 대중의 댓글 안에서도 의견이 양분되었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쿠팡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리고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반면 통역사들은 국민적 공분을 사는 기업이 증언하고 다양한 정치적 노선이 교차하는 청문회 현장에서 통역사가 공개적 압박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지만, 이번 경우는 매체의 확산력에 의해 그 충격이 더욱 확대되었고 통역사가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며 통역사들은 깊은 우려를 제기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전문 통역과 통역사에 대한 대중의 이해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순차통역, 동시통역, 위스퍼링 등 통역 모드와 소요 시간에 관한 정보 등 기본적인

통역 방식에 대한 정보 부족이 통역사의 윤리와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전문 통역사가 준수하는 직업윤리와 중립성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통역사가 고용 주체에 따라 편향적으로 통역한다는 불만이 표출됨과 동시에 통역사에게 자의적인 선별·요약 통역을 기대하는 모순된 현상도 관찰되었다. 이는 엔터프러티나 외교현장의 상징적 주역 등 대중의 통역사에 대한 피상적 이해 수준을 보여준 선행연구와도 궤를 같이한다(강지혜 2010; 허지운 2016; 박소영 2020). 통역 실무 차원의 인식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통역 방식, 작업 환경, 직업윤리보다는 통역사 자질이나 결과물의 품질을 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권상미 2020; 장애리 2025).

본 연구에서 일부 대중은 순차통역을 진행한 통역사와 원 발화자인 증인을 분리하여 인식하기보다 두 사람을 동일시하며 함께 비난하기도 하였다.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나온 증인은 외국인 대표와 임원이고, 통역사는 언어 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인력일 뿐 증인이 아님에도, 증인을 향해야 할 비난의 화살이 통역사에게 쏟아진 것이다.

그러나 통역사들은 2년간의 전문 교육을 통해 정확하고 중립적이며 윤리적인 통역을 하도록 훈련받은 전문가들이다. 실제로 통역사들은 윤리적인 통역이 의사소통 참여자의 신뢰를 얻고 통역사 자신의 장기적인 커리어를 구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문 통역사들의 노력을 외부에서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외부의 인식이 통역사의 직업 만족도, 자부심, 직업 지위 인식에 영향을 주고 직무 환경 조성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이지은 2017; 임세인 2018; 장애리 2025; 배소연 2026; Dam and Zethsen 2013). 전문 통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통역사 및 통역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도 한층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전문 통역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원활한 의사소통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이에 지금까지의 분석을 기초로 다음 6장에서는 공적인 소통 현장의 전문 통역 운영 체계화 방안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절에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인 소통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전문통역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언은 크게 전문통역 제공을 위한 환경 조성, 통역

사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환경 개선, 통역사 활용에 대한 교육 제공, 공적소통 현장의 통역 활용에 관한 프로토콜 수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문통역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 통역사 선정: 기본적으로 통번역대학원 졸업자 등 전문 통역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통역 경력을 쌓은 통역사로 선정하여 통역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통역사 섭외 주체: 통역사 섭외에 있어 상호 신뢰 및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양측의 사전 합의는 필수이다. 또한, 외교 및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측이 각자 신뢰할 수 있는 통역사를 섭외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통역사로 사전 조율하에 섭외하여야 한다.
- 예산 할당: 외국인 증인 출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역 제공 예산을 사전에 할당할 필요가 있다. 통역 서비스 비용은 국회 측이 부담하거나, 각자 통역사를 섭외할 경우 각자 부담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
- 시간 배정: 청문회 의원 질의와 같이 발언 시간에 제한이 있고 순차통역으로 진행되는 경우, 통역 시간을 사전에 고려하여 시간 안배를 해야 한다. 이때 통역 시간은 제한에서 제외하고 원 발화자의 발언 시간만을 포함하거나, 이를 고려해 발언 시간을 최소 두 배로 할당할 필요가 있다. 통역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할당하기 어려운 경우 동시통역을 사용하여야 한다.
- 통역 윤리 준수 환경 제공: 통역사가 원 발화자에 충실한, 정확하고 윤리적인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통역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속기록 언어: 외국인 증인의 발언은 한국어 통역뿐 아니라 원어 기록도 남겨야 한다.

둘째, 통역사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통역 시간: 고강도의 통역이 장시간 지속될 시 통역사 교대를 하여야 하며, 통역사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회의 지속 시간을 예상하여 통역사 교대 계획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 통역사 신원 및 초상권 보호: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통역사가 불필요한 희생양이 되거나 매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역사 화면

노출을 최소화하거나 자리 배치를 조정하고 동시통역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 음향 및 기타 조건: 원활한 통역을 위하여 통역사가 발언을 제대로 청취할 수 있는 자리 배치와 음향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 통역사 소명 기회 부여: 통역이 제공되는 제반 여건을 무시한 채 통역사에게 결과물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과하여서는 안 되며, 문제 발생 시 통역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통역사 활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 전문 통역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상시로 제공하거나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통역 사용자와 청중의 통역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문 통역의 진행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 회의 시작 전 통역에 관한 간단한 안내를 제공하여 선입견을 미연에 방지한다.

넷째, 국회를 비롯한 공적 소통 현장의 통역 프로토콜을 수립한다.

- 정부, 국회,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적 소통 현장에서 전문 통역 활용에 관한 프로토콜을 수립하도록 한다.
- 통역사 섭외, 통역사 자격 요건, 인원 구성, 교대 계획, 장비 및 음향 셋팅, 시간 안배, 예산 확보, 통역 윤리 준수 등 통역사 활용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정리한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이를 사전 계획에 활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쿠팡 청문회 통역 현장에서 나타난 일반 대중과 전문 통역사의 시각을 분석하기 위하여 키워드 분석과 LDA 토픽 모델링,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며 정량 및 정성 분석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양측의 시각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대중의 댓글 안에서도 다양하게 분화되는 의견들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전문 통역과 통역사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보고는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정량 데이터가 조사 시점의 댓글로 한정된 점과 인터뷰 조사 대상이 소수로 한정된 점이 연구의 한계

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통역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양측의 시각을 분석하여 간극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공적 소통 현장의 통역 서비스 활용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댓글 담론 형성 양상이나 유튜브 채널·출처 성격별 세부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된다면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구 대상을 국회 관계자, 청문회 운영 실무자, 정책 결정자 등으로 확대하여 청문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기대를 입체적·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 제언을 한층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문 통역사와 통역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10).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통역에 대한 인식 연구」. 『번역학연구』 11(3): 7-39.
- 고영민. (2004). 대화통역의 이론적 특징과 대화통역사 양성 방안. 세종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권상미. (2020). 「유튜브 댓글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한 봉준호의 통역사 사론 최(Sharon Choi)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연구」. 『통역과 번역』 22(2): 1-28.
- 권상미. (2023).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통역사에 대한 인식과 통역 콘텐츠 분석: 유튜브(Youtube)의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질적 사례연구」. 『통역과 번역』 25(1): 1-26.
- 권상미. (2024). 「통역사 구인시장의 요구사항에 관한 연구: 파이썬(Python)을 이용한 통역사 구인공고 분석」. 『통역과 번역』 26(1): 1-21.
- 박소영. (2020). 「언론의 통역사 보도에 나타난 사회적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통역과 번역』 22(1): 79-104.
- 배소연. (2026). 국제회의통역사의 직업이미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학과 박사학위논문.
- 안희연. (2021). 비즈니스 통역사 역할 연구: 통역사 역할 인식 및 사용자 역할 기대 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미선·최진봉. (2016). 「언론에 나타난 이주민 이미지의 변화」.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0(1): 53-77.
- 이지은. (2017). 「통역사의 직업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프리랜서와 인하우스 통역사 비교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9(3): 85-109.
- 임세인. (2018).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직업지위 인식에 관한 질적연구: 조직 내 직업지위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0(1): 147-176.
- 장애리. (2025). 「AI 시대 인간 통역사의 강점 극대화를 위한 역량 탐색: 사론 최 통역 유튜브 동영상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6(3): 349-393.
- 허지운. (2016). 「언론보도에 투영된 동시통역에 대한 고찰」. 『통역과 번역』 18(2): 153-187.
- 허지운. (2020). 「대학생의 국제회의통역사에 대한 직업이미지 연구」. 『번역학연구』 21(3): 285-312.
- 최원준·설재욱·정희석·윤화목. (2018). 「국내 학술논문 주제 분류 알고리즘 비교 및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8): 178-186.
- 최진철. (2013). 「국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언어중재자의 역할: 한독 비즈니스 사례 연구」. 『국제지역학논총』 6(2): 139-164.
- Angelelli, C. V. (2004). *Medical Interpreting and Cross-Cultural Commun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un, V. and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Dam, H. V. and Zethsen, K. K. (2013). Conference interpreters—The stars of the translation profession?: A study of the occupational status of Danish EU interpreters as compared to Danish EU translators. *Interpreting* 15(2): 229-259.
- Davidson, B. (2000). The interpreter as institutional gatekeeper: The social-linguistic role of interpreters

- in Spanish-English medical discourse. *Journal of Sociolinguistics* 4(3): 379-405.
- Flores, G., Abreu, M., Barone, C. P., Bachur, R. and Lin, H. (2012). Errors of medical interpretation and their potential clinical consequences: A comparison of professional versus ad hoc versus no interpreters. *Annals of Emergency Medicine* 60(5): 545-553.
- Gurianova, A. (2010). Neutrality in Conference Interpreting: Influence of Mode (Simultaneous versus Consecutive) on the Neutrality of the Interpreter.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Geneva.
- Hale, S., Goodman-Delahunty, J. and Martschuk, N. (2019). Interpreter performance in police interviews: Differences between trained interpreters and untrained bilingual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3(2): 107-137.
- Huh, J. (2021). Market demand for conference interpreting in South Korea: Sifting through the signals. *Translation & Interpret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Research* 13(1): 71-100.
- Lee, J., Choi, M., Huh, J. and Chang, A. (2016). Community interpreting services by marriage migrants for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Perspectives* 24(2): 179-200.
- Lee, J. and Huh, J. (2021). A need for building an ethical and trusting partnership between police officers and interpreters: Findings from South Korea. *Translation & Interpreting* 13(2): 31-48.
- Pöchhacker, F. and Zwischenberger, C. (2010/2015). Quality and role in conference interpreting: Views from the East and South of Europe. In Zwischenberger, C. and M. Behr (eds.), *Interpreting Quality: A Look Around and Ahead*. Berlin: Frank & Timme, 269-296.
- Reddy, M. J. (1979). The conduit metaphor: A case of frame conflict in our language about language. In Ortony, A. (ed.),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84-324.
- Roy, C. B. (1993). The problem with definitions, descriptions, and the role metaphors of interpreters. *Journal of Interpretation* 6(1): 127-154.
- Takimoto, M. (2008). "Keeping an Eye on All Balls": Interpreters' Functions in Multi-Party Business Interpreting Situations. PhD dissertation, Monash University.
- Tannen, D. (1993). What's in a frame?. In Tannen, D. (ed.), *Framing in Discour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4-56.
- Wadensjö, C. (1998). *Interpreting as Interaction*. London: Routledge.
- Zheng, B. and Xiang, X. (2018). Between invisibility and over-visibility: Self-perception and user expectations of liaison interpreters in business settings. *Babel* 64(1): 1-32.
- Zwischenberger, C. (2009). Conference interpreters and their self-representation: A worldwide web-based survey.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4(2): 239-253.

[인터넷 자료]

- 김효정. (2025). 영어 테스트 치른 쿠광 청문회...김범석은 어디 가고 한국어 못하는 임시대표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4347?sid=100\(2025.3.18. 검색\)](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4347?sid=100(2025.3.18. 검색)).
- 민경하. (2025a). 난장판된 쿠광 청문회...동문서답에 "AI통역 띄워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81696?sid=101\(2026.3.18. 검색\)](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81696?sid=101(2026.3.18. 검색)).
- 민경하. (2025b). 통역 기사웁부터 고성·삿대질까지...‘난장판’ 쿠광 청문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85442?sid=101\(2026.3.18. 검색\)](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85442?sid=101(2026.3.18. 검색)).
- 박용후. (2025). 쿠광 청문회가 드러낸 기술과 권력의 오만...이젠 소비자가 바뀌어야 한다[박용후가 소리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3462?sid=110\(2025.3.18. 검색\)](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93462?sid=110(2025.3.18. 검색)).

- 색).
- 양형욱. (2025). 쿠팡도 남긴 ‘꼼수 통역 흑역사’... 안 넘어가는 여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97845?sid=100>(2026.3.18. 검색).
- 이대호. (2016). [MTN현장+] 1명의 외국인과 4명의 동시통역사... 가슴기살균제 청문회 그 뒷이야기.
<https://news.mtn.co.kr/news-detail/2016083114032472969>(2026.3.18. 검색).
- 이성현. (2026). 늘어나는 외국인 증인, 말 안 통하는 국회.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34>(2026.1.11. 검색).
- 이제향. (2025). ‘호구된 국민’ 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 ‘맹탕’ 논란 속 고발 의결.
<http://www.breaknews.com/1170109>(2026.3.18. 검색).
- 한국통번역사협회[KATI]. (2026). #한국통번역사협회의 목소리.
https://www.instagram.com/p/DTcOvyDkxGe/?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MzRIODBiNWFIZA==(2026.3.18. 검색).
- 홍수현. (2025). “이준석만 이해... 통역 줌” 청문회에 외국인 보낸 쿠팡 결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85536?sid=100>(2026.3.18. 검색).
- NATV국회방송. (2025.12.2.). [국회방송 생중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질의 (25.12.2.). <https://www.youtube.com/watch?v=O-Zvm3hB568>(2026.3.18. 검색).
- OBS뉴스. (2024.10.29.). [현장영상] 한국에서 ‘유독’ 비싼 애플... 이유 몰랐더니 돌아온 답변이..?!.
<https://www.youtube.com/watch?v=116OMpNOcjA>(2026.3.18. 검색).
- AIIC. (2026). Code of Professional Ethics. Retrieved from
<https://aiic.org/company/roster/companyRosterDetails.html?companyId=13403&companyRosterId=120> on 10 April 2026.
- AUSIT. (2012). AUSIT Code of Ethics. Retrieved from
<https://ausit.org/code-of-ethics-and-code-of-conduct/> on 10 April 2026.

부록 1. 분석 대상 동영상 목록

번호	동영상 (동영상별 조회수: 1,700 ~ 291 만 회/게시일: 2025 년 12 월 17 일 ~ 2026 년 1 월 1 일)
1	‘의장님, 우리 잘 했나요?’ 통역사만 ‘열일’ 더 센 청문회로
2	최민희 ‘동시 통역씨라’...쿠팡대표 “내 통역쓰겠다” 발각
3	[지금뉴스] 답답한 이준석 “제가 번역해드릴게요”...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
4	‘쿠팡 청문회’ 이준석 통역 패스에 일동 당황
5	통역도 시간 낭비! 의미없는 답변에 결국 쿠팡 청문회 극단의 조치 취하는데...
6	쿠팡 청문회에서 통역 답답해 대폭발... “그만 답변하시라고!!”
7	쿠팡 청문회 통역 지연.. 이준석 답답해 셀프 통역
8	이준석,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쿠팡 청문회..첫 질문부터 ‘빠거덕’
9	“동시통역기 차세요!” 쿠팡 청문회 공개 설전
10	‘영어 듣기평가’ 된 쿠팡 청문회..왜변까지?
11	“통역기 쓰라” vs “비정상” 쿠팡 청문회 기싸움?
12	“HAPPY...” 한마디에 쿠팡 청문회 ‘발각’
13	쿠팡 청문회에서 동시통역기 사용 ‘기싸움’
14	[현장영상] “그렇게 통역하시면 안 되죠!”...‘통역사’ 두고 난리 난 청문회
15	[오늘 이 뉴스] 통역이 대신 “한국말 못하셔”.. ‘영어 선서’ 쿠팡 청문회 난리
16	사상 초유의 ‘영어 선서’ 쿠팡 청문회! 글로벌 기업이라고? 쿠팡 영어로 답하자 최 위 원장 한국말로 버럭 소리지르며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17	통역쇼와 동문서답의 완벽한 조화?
18	[지금뉴스] 최민희 “국회 동시통역 들어라”...쿠팡 대표 “이건 비정상”
19	‘사오정.영어 듣기평가’ 현장 된 쿠팡 청문회..더 센 청문회 재추진
20	[자막] 최민희, 쿠팡의 ‘오역 통역사’ 기용과 황당한 통역 꿈수에 분노 폭발!
21	이준석,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쿠팡 청문회..첫 질문부터 ‘빠거덕’
22	동시통역기 쓰세요! NO!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쿠팡청문회
23	[화라이브를 켜라] 쿠팡 청문회 실시간 현장...이 시각 국회
24	이준석, 쿠팡 측 대답에 헛 웃음 지었다 왜?
25	[현장영상] 번역 기다리던 이준석 참을성 폭발..“아 제가 할게요” 속사포
26	쿠팡 청문회에서 오간 충돌.. ‘동시통역기 착용해라 VS 싫다’
27	청문회에 외국인 임원만 보낸 쿠팡 “한국말 못 한다”
28	국회 청문회 출석한 쿠팡 대표 “Happy to be here...” 답변에 “의례적 인사 하지마”
29	이준석 ‘또’ 통역 패스하자 최민희 한숨 쉬더니

30	“착용해라” vs “싫다”...쿠팡 청문회서 ‘동시통역기’ 두고 충돌 지금 이 뉴스
31	[현장] 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출석한 대표는 외국인 법률 전문가/하버드 출신 이준석, 잡다 못해 번역 자처
32	이준석 “김범석 어디갔냐” 물으니 쿠팡 신입대표 “Happy to be here”
33	쿠팡 대표, 사과 대신 고성?...동시통역 놓고도 기싸움
34	시작부터 “한국어 전혀 못 해”...청문회 내내 ‘동문서답’
35	“지금 통역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급발진한 쿠팡 대표이사 해럴드 로저스 답변 태도 봤더니..
36	최민희, 인상 확 쓰더니...쿠팡 해럴드 로저스 통역사 앞으로 부른 이유는?
37	“통역 선생님, 그런 거 번역하실 겁니까?”
38	[돌발영상] 복장 터지는 쿠팡의 동문서답들... 청문회인가 영어 듣기인가
39	동시통역기 거부, 손사래까지...돌변한 쿠팡 대표 “그만합시다”
40	“지난번에 왔던 분이죠?” 최민희, 통역사 앞으로 부르더니
41	통역기 쓰랬더니 ‘별걱’...“그만하자” 막 나간 쿠팡 대표
42	“웨얼 이즈 범 캅” 못알아듣는 미국인?...쿠팡 신입 대표의 답변 회피 전략
43	“Happy to be here”...영어듣기 평가 된 ‘쿠팡 청문회’
44	[사사건건] “내 통역사 쓸래” 한국 쿠팡 임시 대표가 껄뻐한 이유?
45	30일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해럴드 로저스 대표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46	쿠팡 외국인 대표 한국어 실력은?
47	[더 인터뷰] 결국 맹탕된 쿠팡 청문회, 영어 듣기 평가 됐다? ‘장모님’만 아는 로저스, 알아 듣는 사람은 이준석 뿐?
48	심각한 쿠팡 통역사 상태: 국회 청문회에서 지멋대로 오역한 쿠팡 통역사
49	쿠팡 청문회 중 뜻밖의 영잘알 인증 하게되자 뭔가 민망해 웃는 개혁신당 이준석
50	“할 줄 아는 한국어 장모님”...강제 영어듣기평가가 시킨 쿠팡 청문회
51	[뉴스 ‘꼭’] 영어만 듣고 이준석 바로 질문, ‘통역 패스’에 최민희 “잠깐”
52	최민희가 통역사 모욕하자 쿠팡 대표 “내 통역사 유능해!”
53	최민희 “공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쿠팡 커뮤니티 반응 보자 ‘정적’
54	(속보) 최민희 막말에 분노한 쿠팡 대표...

This paper was received on 7 May 2026; revised on 7 June 2026; and accepted on 15 June 2026.

Authors' email addresses

allylingui@gmail.com

huhjiun@ewha.ac.kr

About the authors

Boyoon Jang (first author) is a doctoral student in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GSTI) at Ewha Woma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education and translator identity.

Jiun Huh (corresponding author)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GSTI) at Ewha Womans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I policy, market trends, gamification, T&I technologies, and interpreter training.